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NO 30번인 송순희 입니다.

1985년에 협회에 입문하여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프로 골퍼로 선수 생활을 하였고 선수 생활과 함께 약 25년간 대의원, 이사, 전무이사 그리고 경기위원을 재임하며 협회 집행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왔습니다.

협회 초창기에는 회원들의 추천과 격려에 의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원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대의원과 임원 선출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법을 보며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협회가 회원도 많고, 일도 많은 <큰 협회>가 되었다는 의미라 회원으로서 기쁘고 또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협회 임원으로 일을 하는 동안 나름대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 선배님, 동료들과 최선을 다했지만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간 경기위원회에서 경기위원과 경기부위원장으로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협회의 회원인 선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어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 회원인 선수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 대회는 협회에서 하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대회장에서 경기를 하는 경기장은 현장입니다.

건설회사로 보면 공사현장이고 전쟁으로 보면 전쟁터입니다.

역대 경기위원회 위원장과 고문을 지낸 김광배님께서 늘 말씀하신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면 이에 따른 회의 안건도 제대로 논의 될 수도 없고 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투어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입장과 협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갈망하기에 미력하나마 임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현실감 있는 이사회의를 만들겠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에는 선수는 물론 대회 스폰서,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을 준비하는 방송사, 신속한 기록을 전달하는 언론사, 전반적인 대회를 운영하는 대행사, 코스를 관리하는 골프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갤러리 등, 저희 협회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파트가 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협회 이사회 안건 중 약 70% 이상이 위 파트와 관련되어 있다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기장에서 경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살아 있는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레 많은 부분을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위 외부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협회 임원 및 직원들의 활동상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협회 이사회에 상정되어 논의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엔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회의 안이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며 많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임원 분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와 문제가 되는 사안을 논의 한다고 해도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름지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임원들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 출장을 나온다고 해도 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깊이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면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전, 협회 교육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현장에 가끔 가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 곳 또한 경기위원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안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 갖는 임원도, 책임감 있는 담당직원도 별로 없었고 마치 협회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조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다 잘 하고 있었지만 제가 본 그 곳에서만 그 느낌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관심 받지 못하고 움직이다보니 교육 부분에서 회원을 위한 좋은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어도 어느 것은 논의도 제대로 안되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회원들이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스폰서나 대행사와 논의하여 만들어 주어야하고

교육 부분에서는 밖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수준 있는 교육들을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담당 임원

과 직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질 좋은 교육이 계속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떠한 안전들이 올라오면 그 안전들에 대해 깊게 알고 있어야 다른 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해야 탁상공론과 탁상행정이 나오지 않게 되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경기분과위원회나 교육분과위원회 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최근 협회 이사회 안전 중 처리된 것만 봐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내린 결론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경기 환경을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투어는 많이 좋아 졌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갤러리 통제 능력, 선수들의 물 보급 현황, 기타 등등 하나 하나 세밀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2부, 3부, 4부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지만 그래도 정규투어에 버금갈 수 있는 환경과 개선책을 만들어 서서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외부 행사 중 자선골프대회, 연탄 사서 나르기, 장애인 돕기 등 사회적 열약자 들을 돕는 행사는 참으로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협회 월간 책자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훈훈해지고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밖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 회원들을 돌아보면 일부 회원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불우하게 사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 회원들을 찾아서 회원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회원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러한 회원들 또한 점점 더 늘어날 것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며 젊어서부터 노후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지금 협회에서는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연수가 되면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이 시대에 맞게 바꾸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에 걸 맞는 협회 행정과 우리 회원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선수들은 이미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세계 1위의 골퍼들입니다.

그러나 협회 행정은 아직 선수들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뒤떨어지는 행정은 협회와 회원들에게 많은 손해를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최대의 실력발휘를 하게 해줌으로써 스폰서나 방송에도 만족도를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역으로 뛰지 않는 회원들에게도 복지나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스팩을 이용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함이 아니고 정말 회원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협회와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